

【 해외금융뉴스: 일본 】

손보 3사, 해적 피해로 해상보험료 인상

□ 도쿄해상니치도화재 등 일본의 주요 손보 3사는 아프리카 소말리아 해안과 태국 서남해 안다만 해역을 일반적인 선박보험 계약이 적용되지 않는 제외수역(除外水域)으로 지정해 보험료를 인상했다고 2월 4일 발표함.

- 도쿄해상니치도화재와 미츠이스미토모해상화재, 손해보험재팬 등 손보 3사들은 소말리아 해역과 안다만 해역을 제외수역으로 지정한 이유에 대해 이 지역에서 해적으로 인한 선박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보험금 지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함.
- 국제해사국(International Maritime Bureau)이 2008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, 세계에서 일어난 해적 피해는 총 293건으로 이 중 소말리아 해안과 안다만 해역에서의 피해는 전년과 비교해 2배가 증가한 111건으로 전체 피해의 약 40%를 차지할 만큼 이 해역들은 피해다발 지역으로 손꼽힘.
- 영국소재 다수의 보험회사들은 이미 작년 말에 이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에 대해 통상의 보험료와 함께 선체의 가치에 부과되는 할증요금을 올린 사실도 이번 보험료 인상조치를 단행하게 만든 배경임.

□ 보험료 인상과 함께 대형 손보사들은 보험에 가입한 해운사에게 해적 출몰시 대처요령 교육 등 계약범위 이외의 관련 컨설팅 서비스를 전개하기로 함.

- 미츠이스미토모해상과 손해보험재팬은 해적에 관한 정보 제공을 포함해 해적의 습격을 받았을 때 승무원이 취해야할 실질적인 대처요령 등을 보험사 차원에서 교육할 예정임.
- 이러한 서비스는 해적으로 인한 선박피해를 최소화하고 납치 등과 같은 최악의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한다는 차원에서 업계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큰 호응을 얻고 있음.

(산케이신문, 2/5)